‘7~10일 중대고비’… 확산고리 차단에 달려

정부 “대구 지역사회 전파 못막으면 전국확산 가능성”
총력 방역 태세… 신천지대구교회 등 명단 확보 검사

신천지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연일 발생하면서 두 곳에서 시작된 확산의 고리를 끊는 게 지역사회 대유행 차단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 두 곳을 다녀간 접촉자를 매개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방지는 이 두 곳과 연관된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어떻게 봉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양상이 신천지대구교회와 청도대남병원 등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로 감염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 이 상황만 보면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이 두 곳에서 신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비한 선제 조치로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추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집단 감염원을 찾아내서 그 주변을 차단하고 격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브리핑에서 “대구의 경우 확진 환자의 발생 규모가 커서 이 지역의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국적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7~10일이 신천지대구교회 등의 감염경로를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 방역태세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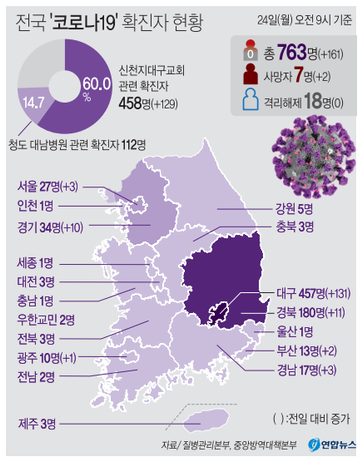
▶신천지대구교회 등에서 환자 무더기 쏟아져=신천지대구교회에서는 연일 수백명 단위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3일 전체 확진자 602명(오후 4시 기준) 중에서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자는 329명(54.6%)으로 절반이 넘었다.

24일(오전 9시 기준)에도 코로나19 환자가 161명이 추가 발생했는데 이중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자가 129명에 달했다.

대구 확진자는 115명, 경북 확진자는 8명이다. 이외 경기에서 3명, 경남에서 2명, 광주에서 1명 확진자가 나왔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자는 전날 329명에서 458명으로 늘었다. 대구·경북 확진자를 포함하면 636명으로 늘었다. 청도대남병원 관련 확진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112명이다.



방역당국은 신천지대구교회 종교행사에 참여한 대구지회 신자와 다른 지역 신자 등 9535명의 명단을 확보해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3일 이내에 신천지대구교회 등과 관련한 환자 수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신천지대구교회 등을 방문해 이들을 중심으로 추가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

신천지대구교회나 신천지 교인인 31번 환자가 다녀간 호텔 뷔페 등과 동선이 겹친 다른 지역 사람들이 2차 감염되는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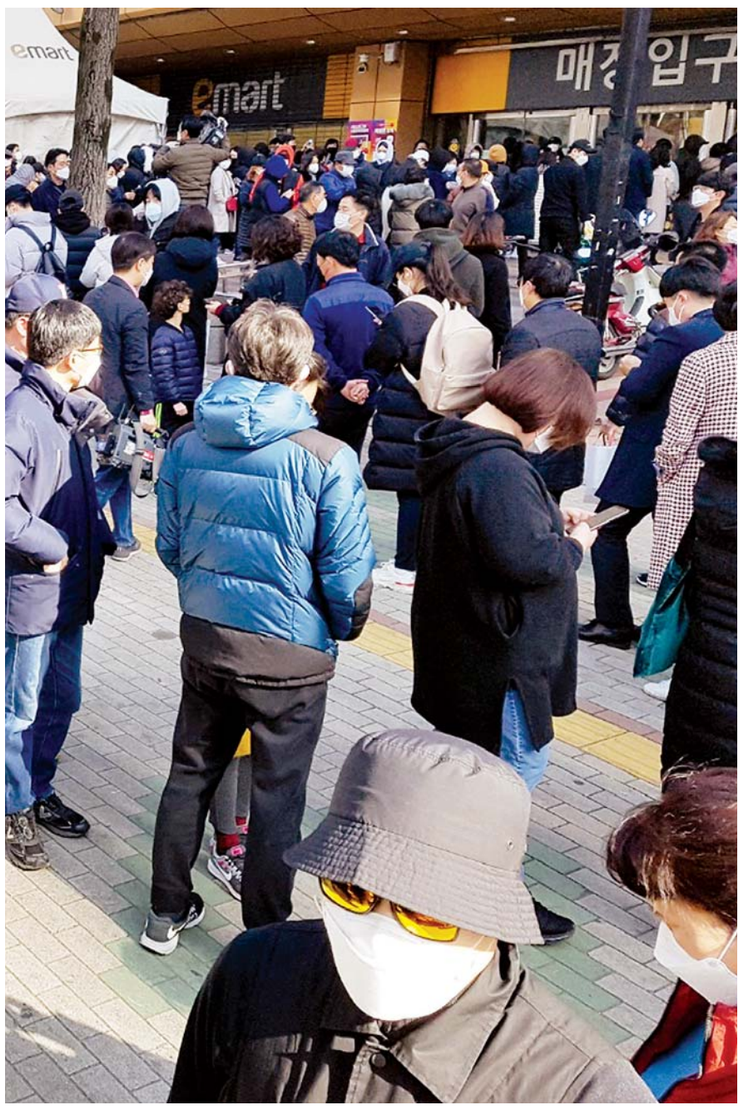
광주의 한 확진자(31·여성)는 신천지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남편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경기도 이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왔는데, 신천지대구교회를 방문했다가 확진된 이들과 공사 현장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지역 방역에 총력…대구지역 거주자·방문자 2주간 외출 자제=정부는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규모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구지역의 감염전파를 차단하고 소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범정부적 역량을 모두 동원해 고강도의 방역 봉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지나친 불안을 갖기보다 정부를 믿고 현장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우선 최소 2주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등 이동을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다.

기침, 인후통, 오한 등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지 말고, 1339 콜센터나 보건소로 먼저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증상이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대구 마스크 구하기 대란, 마트 앞 장사진 24일 오전 대구 수성구 이마트 만촌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2주간 감기증상’ 대구시민 2만8000명 전수조사

신천지대구교회 교인 합하면
정부, 총 3만7000명 검사 계획

정부가 앞으로 2주간 감기 증상을 보이는 대구시민 2만8000명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침 등 감기 증상이 코로나19 초기 증상과 구별되지 않는 만큼 감기 증상자까지 검사해 확진자를 조기에 가려내 치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집단 감염이 발생해 전수검사가 실시되고 있는 신천지대구교회 교인까지 합치면 총 3만7000명에 대한 검사가 2주간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2주간 신천지 교인 이외의 증상을 보이는 대구시민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과거 통계를 추정해서 합리적으로 추정했을 때 그 대상자는 2만8000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천지대구교회 전수검사 대상자인 9000여명을) 합치면 3만7000여명에 대해 2주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확진자로 판정되면 바로 치료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검사 대상자로 보고 있는 2만8000여명은 코로나가 의심되는 환자는 아니다”며 “코로나가 초기 증상이 기침, 콧물이 나타나는 감기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 통계치를 봤을 때 대구에서 대략 2만8000명에서 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천지대구교회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신천지대구교회종교행사에 참여한 953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증상을 보이는 교인을 우선해서 진행되고 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신천지대구교회 교인 중 증상이 있다고 파악된 12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어제까지 1차 검체 채취를 완료했고, 수요일(26일)까지는 검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천지대구교회 외에 다른 지역 신천지교회 교인도 파악 중이다. 신천지대구교회 행사에 참여한 다른 지역 교인들이 잇따라 코로나19로 확진되는 등 전국에서 신천지 관련 환자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김 부본부장은 “신천지 쪽에 대구뿐만 아니라 그 시기 대구를 방문해 종교행사에 참석했던 교인의 인적사항을 요청했다”며 “또 확진 환자가 나왔던 다른 지역의 신천지교회 교인의 인적사항도 요청한 상태로, 신천지에서 충분한 협조가 이뤄지는지를 보고 추가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발열·호흡기 증상자 등교·출근 말라”

정부, 대국민 수칙 개정
“휴식하며 경과 관찰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와 출근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심각’ 단계 전환에 따라 대국민 예방수칙을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 수칙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는 지침이 담긴다.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찾지 않는 편이 좋고, 의료기관을 찾거나 외출하는 경우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밖에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의 개인 예방 수칙을 지키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 수칙에 포함된다.

정 본부장은 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사람은 외출하거나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격리조치 중인 사람은 의료인, 방역 당국의 지시를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천지대구교회 집회 등에 참석했던 신도와 방문자들도 자가격리조치를철저히 이행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보건소, 1339 콜센터 등에 문의한 뒤 지시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